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윤위중의
잠시 심포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000억달러를 넘겼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번째 규모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도 많았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가운데 수출기여도가 2.0%라는 자료도 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2 가량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이번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봐도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하는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트럼프의 '고집'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의 석학들은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법'을 계기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콘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관세부과에 반대하다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자동차 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는 백인 서민층이 많은 곳으로,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것이라 전망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약 129억 6600억달러)가 전체 무역(약 178억 7000만달러)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철강에 이은 다음 타깃은 자동차가 될 것이라 관측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270명이다. 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중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이끈 주역이다. 한 동안 공직을 떠났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명됐다. 미국과의 FTA 타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년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다. 게다가 그가 이끌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가운데 100여명 정도는 통상교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 우리 무역 규모에 비하면 적은 인력으로 10년간의 업무 공백을 따라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산업부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신통상전략실 설치를 통해 통상담당 조직을 격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신통상전략실이 설치되면 산업부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나라가 통상 위협의 풍랑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나마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차체에 정부의 통상교섭 전문가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어도 풍요로운 국가를 후대에 물려주려면 통상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산업부장 yjh@metroseoul.co.kr

신도 주인도 없다



기저 수첩
이 범 중
(정책사회부)

한때의 추앙이 추락으로 뒤집혔다. 지난 5일 충남도청에서 '미투' 운동을 응원 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같은 날 밤 김지은 충남도 정부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김여준 '판지일보' 총수의 예언대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는 주장이다. 진영논리가 만든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선과 악, 일탈과 범죄의 경계를 오가는 인간의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없다고 믿어 온 결과다.

우리 사회에서 거장으로 불리던 이들이 저질러 온 성범죄의 도양은 신격화다. 지난 달 만난 어느 문인은 "문단 내 성폭력의 원인은, 가까운 선배 문인을 한껏 추켜세워 그로인한 열매를 취하려 든 후배들의 태도에도 있다"고 말했다. 존경받는 선배와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은 그렇게 일체화된다.

미투에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음모론자 역시 이 같은 패거리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진영에 있다고 생각해 온 특정 언론이 '우리 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분열'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좌우에 빨간색과 파란색 필름이 붙은 '적정한 경'으로 세상을 본다. 화면 속 사물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림자를 겹쳐놓으면, 적정한경을 쓰고 볼 때 해당 부분만 볼색 튀어나온다. 정의로운 파란색과 부정한 빨간색의 싸움에 매몰된 생각이 음모론의 입체감을 키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선 피해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눈물에는 색이 없기 때문이다.

'미투 공작'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뉴스에 댓글을 달지만, 그 내용은 각 진영 내에서 추앙받는 인물의 주장을 답습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유의 전제는 인간의 독립성이다. 김비서는 신처럼 군림하던 안 지사를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그가 '아름다운 러시아와 스위스의 풍경만 기억하라'는 명령을 어긴 순간, 신의 지배는 끝났다.

김비서를 향한 2차 가해자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들의 음모론은 누구의 세계관인가. 그 세계는 어느 신이 지배하는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인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촛불시민의 자리는 진영에 있나, 개인에 있나.

/joker@

인사

-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병역공개과정 황영식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김용두
- ◆한국감정원 ◊ 본사 △적정성조사처장 박형규 △보상사업본부장 양기돈 ◊ 지사 △서울동부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이장규 |
| 인쇄인 | (주)중앙일보 김교준 |
| 광고문의 | 02)721-9851, 3 |
|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 |
| 제3910호 / 0004호 | |

지사장 김남수 △ 인천지사장 홍성훈 △ 전북전주지사장 조성용 △ 전북군산지사장 최경천 △ 경남진주지사장 이정섭 △ 경북안동지사장 김봉진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산업입지정책과 장 김근오

◆용인시 ◊ 승진(지방서기관) △ 처인구청장 김교화 ◊ 승진(지방사무관) △ 처인구 생활민원과장 직무대리 이효민 ◊ 전보(지방서기관) △ 복지여성국장 안병렬 △ 수지구청장 최희학 ◊ 전보(지방사무관) △ 법무담당관 이형주 △ 기획재정부 세정과장 강구인 △ 처인구 공원환경과장 김용수

◆교육부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 지원팀장 서기만 김지연 △ 교육부(육아휴직 연장) 행정사무관 김정원 △ 교육부(육아휴직) 행정주사 박재형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 지원팀 지원 근무 행정주사보 이경용 △ 기획조정실 파견근무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박세희 △ 고등교육정책실 파견근무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유철상

부음

▲이금순씨 별세, 고영선(오리콤 대표이사)씨 장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공주시 유구 ☎ 02-2258-5940

▲이인재씨 별세, 이수호(한국해양대 교수)·정호(부산일보 기획위원·김해뉴스 선임기자)씨 부친상, 류동순(동궁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최대웅(전 금성중 교감)씨 장인상, 신규(대전주조 신유통사업부 과장)씨 조부상 = 7일 오전, 빈소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 010-3549-7760.



우리은행, 창립 119년 맞아 소방청에 1.19억 기부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지원하는 '우리119 희망 드림' 행사를 가지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8년 창립 119주년을 맞아 119 소방대원들의 복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기획, 그 의미를 담아 소방청에 1억1911만 9000원(119,119,000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방청은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이 기부금으로 소방공무원 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한화그룹 '한화클래식 2018' 6월 개최

한화그룹은 자사가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18'의 무대가 6월 14일부터 3일간 천안예술의전당 대극장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도 영국을 대표하는 고음악 연주단체 '잉글리시 콘서트'와 아름다운 음색으로 세계 3대 카운터테너로 꼽히는 안드레아스 솔의 내한무대를 구성한다. 올해 공연 티켓은 오는 1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한화그룹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자녀에 35억 학자금

1인당 두 자녀까지 신청 가능
오는 16일까지 접수 받아



CJ대한통운은 새 학기를 맞아 집배점장 및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3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중·고등학생(1년 이상 근속) 및 대학생 자녀(5년 이상 근속)를 둔 집배점장과 택배기사다. 중학생은 연간 2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택배기사 1인당 두 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0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제도를 도입했다.

수혜 인원은 첫 해 1700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3800여 명에게 학자금 혜택이 돌아갔다. 지난 6년간 연인원 1만6498명에게 총 113억원 상당의 학자금을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B국민은행 'KB디지털 고객자문단' 출범

KB국민은행은 7일 'KB디지털 고객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자문단을 통해 고객들의 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품과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고객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번 고객자문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이 선발됐으며, 20~40대의 젊고 역동적인 직장인과 대학생, 주부로 구성됐다. 고객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참여 사전 체험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금융연수원, 인디 IBI·LSP와 MOU

금융연수원 조영제 원장(왼쪽 첫번째)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최중구 금융위원장과 원보 산토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이 임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은행중사자협회(IBI) 및 금융전문자격인증원(LSP)과 자격인증 관련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연수원